

글. 김성환 Kim, Sung-hwan

Stefan Schmitz bda Architekten und Stadtplaner

보이지 않는 손 ; 건축과 문화 콘텐츠의 협업 가능성에 대하여

Invisible hand; about possibility on the collaboration of architecture and cultural contents

문화가 한 도시에 가져다주는 효과는 가히 그 상상 이상이다.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하고 그들에게 생각할 힘을 가지게 해주며,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 이러한 생명력은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손'이라 정의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도시관련 정책들 중 문화와 관련된 부분과 연결되어 많은 건축사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건축사들은 스스로 이 부분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고 있으며, 실제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독일 뮌헨(Munich)에서 북동쪽으로 2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블라이바흐(Blaibach)라는 작은 시골마을이 있다. 이곳은 지난 10년 동안 전체 인구의 4.5%가 감소하였는데, 노후화와 함께 마을 중심지역이 심각한 침체기를 맞게 되었다. 이 침체기를 극복하고자 정책 당국은 기존 시가지 구역에 역사지구를 조성하고 과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고자 '장소성 유지'를 기본 목적으로 하였다. 이 목적을 토대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시,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장소 이용의 필요성을 끌어내고자 함이 프로젝트의 지향점이었다.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진행된 '지역중심 블라이바흐(Ortsmitte Blaibach)'라는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거주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당국정책과 비교작업을 시작하였다. 2009년 '도시 서쪽 개조사업(Stadtumbau West)'이라는 정책을 받아들여, 2010년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자들을 위한 마을 프로그램을 개선하였다.

당시 프로젝트 담당이었던 건축사 피터 하이멜(Peter Haimerl)은 시작부터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 노력했다. 뮌헨에서 활동 중이었던 피터 하이멜은 이 지역 출신이고, 독일 및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출신의 유명 성악가 토마스 바우어(Thomas Bauer)를 이 프로그램의 중심에 세웠다. 그는

이미 블라이바흐를 기반으로 하여 작품활동 및 공연활동을 진행하겠다는 결심이 끝난 상태였다. 하지만 정책당국은 우선 마을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 설득하여야 했다. 한 회사의 재정적인 지지를 받는 음악가가 마을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란 주민 스스로 가늠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말인 즉, 마을 전체의 미래를 한 음악가의 성공 여부에 따라 좌지우지 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고민이었다.

주민들의 반대를 이해하고 그들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콘텐츠를 찾아내기 위하여 피터 하이멜은 공간을 먼저 탐구하기 시작한다. 마을을 위한 음악당을 기획하고, 우선 이 음악당이 들어서는 대지 뒤에 비어있는 한 집을 찾아낸다. 이 집을 마을 주민들의 교육 및 전시공간으로 전환하였는데 이 공간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훗날 음악당에서 열리는 다양한 공연들과 밀접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지역을 대표하는 하나의 큰 콘텐츠로 만들어 내고자 함이었다.

그의 이런 생각은 멀리 뮌헨에서부터 가까운 레겐스부르크(Regensburg)라는 도시까지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의 재정적인 지원 약속을 직접 받아낸다. 최근 3년간 건축사가 밑그림을 그려내고 건물을 완성시키기까지, 20톤에 가까운 콘크리트와 지역출신의 미술가가 직접 채굴해낸 45,000여개의 돌, 소리를 만들어 내기 위한 3,000여개의 방음장치 등이 어우러져 200여개의 좌석이 들어선 음악당이 완성이 되었다.

2014년 9월, 이 음악당의 시작을 알리는 작곡가 프란츠 요제프 하이트(Franz Joseph Haydn)의 천지창조가 초연되었다. 이 전체 콘텐츠를 만들어내기까지 성악가 토마스 바우어, 피아니스트이자 문화재단 이사 우타 히엘셔(Uta Hielscher), 그리고 건축사 피터 하이멜의 기본적인 생각은 "누군가 자신의 인생에서 행운을 맞이했다면, 그 행운을 사회에 돌려줄 수 있는 것도 그들의 몫"이었다고 한다.



블라이바흐 콘서트하우스

그들이 가지고 있던 행운,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은 비단 이 지역사회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충분히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물질이 최우선되는 사회 속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자신의 집을 짊어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실제로 이런 일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가장 큰 고민은, 하나의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일반인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실제로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 현재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공연기획을 하고 있는 주현우 대표, 유럽에서 활동 중인 피아니스트 박희정과 함께 프로젝트 'Ortsmitte Blaibach'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다.

*

주현우 대표는 현재 비엔나를 기점으로 유럽시장에서 다양한 공연문화를 기획하고 있는데, 혼한 형태의 작업이 아닌 것 같다. 정확히 어떤 작업을 진행 중 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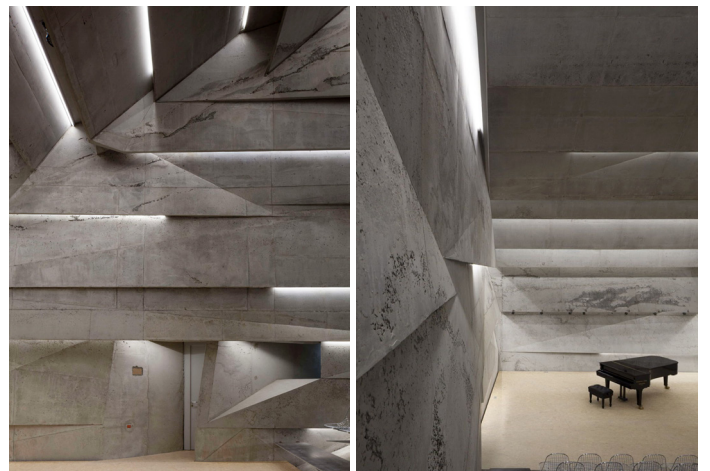
주현우 : 작곡을 전공하고 약 10년간 한국과 미국, 유럽에서 클래식 연주 기획의 현장을 발판으로 클래식 음악에 종사하는 예술인들이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공연 네트워크에 시대에 맞는 마케팅과 기획력을 더하여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아시아 예술인들이 클래식 음악의 본 고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커리어 컨설팅을 하고 있다.

박희정 피아니스트는 유럽에서 활동하는 때 순간 다양한 일들이 있었을 것 같다. 올 한해 가장 큰 수확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박희정 : 개인적으로 주어진 하나하나의 무대에 최선을 다해 서고 있다. 다만 연주회를 거듭할수록 여태까지 작업해왔던 내 방식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앞으로 어떤 점을 개선해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항상 스스로 질문하고 있다. 이 질문들 속에서 계속되는 시도들이 계속 무대 위에 서게 하는 원동력인 것 같다. 특히 얼마 전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 나누었던 '음악의 시각화'에 대한 생각을, 지난 11월 독일의 한 작은 교회에서 김홍민 첼리스트와 함께 시도했었는데, 많은 오류에도 불구하고 작업하는 과정이 참으로 만족스러웠고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보고 가능성을 볼 수 있어서 참 뿌듯했다. 연주 자체나 관객들의 큰 호응 때문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을 시도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다.

공연시장이 가지는 특성상 현재 기형적인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는데, 이는 어떤 뜻인가?

주현우 : 현재 한국에서 지적되고 있는 클래식음악 공연계의 문제점을 요약하자면, 청중에게 음악을 들려주려는 순수한 연주기획의 목적은 퇴색되어가고 실적을 위한 자기 과시용 연주회와 그 대행업체만이 남고 있다. 기획사는 수익만을 좇아 관객 동원에 유리한 연주만 주최하여 공연의 다양성이 상실됨으로써 관객에게 외면 받는 악순환이 계



블라이바흐 콘서트하우스 내부

속 되고 있다. 게다가 수요일에 비해 해마다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연주자들이 관객을 채우지 못해 스스로 티켓을 사서 자리를 채우는 이른바 '초대권 문화'가 성행하고 있는데, 이 맹점을 이용하여 이익을 내는 업체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유럽의 상황은 아직 이보다는 나으나 점차 젊은 세대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의 욕심을 위해 공연기획의 구조를 바꾸는 상황이 많다는 것은 연주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운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박희정 : 공연기획의 목적은 어떠한 형태의 콘텐츠를 만들어 특정 메시지를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다. 이때 연주자들은 공연기획에 가장 밀거름이자 기초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연주자들도 연주를 할 수 있는 실력을 기본으로 자신의 분야 외적인 다양한 경험과 인문학적인 지식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단편적인 경쟁 위주의 구조 속에서 우리 세대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스스로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초등학교 시절부터 대학교 입학까지 비교와 경쟁으로 점철된 주입식 입시교육에 익숙해져 그 이후에도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연주자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무대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프로필 위주의 연주자 키워내기 풍토가 짙어, 연주자들 사이에서 입시와 다를 바 없는 경쟁의식을 부추기고, 그러한 심리를 이용해 공연기획사들이 수익을 내고 있는다고 생각한다. 기성세대들이 미래를 보지 못하고 인재양성보다는 단순히 금전적인 욕심으로 젊은 예술가를 이용하는 상황은 비단 클래식 음악계뿐 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다.

공연기획이나 앞서 실례로 살펴보았던 프로젝트와 같이 특이 상황이 제공되거나, 재정적인 지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순수하게 진행되기란 상당히 어렵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 모두 꾸준하게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원동력은 무엇인가?

주현우 :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연기획의 형태는 과거 200년 전부터 내려오는 방식과 거의 동일하다. 다만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관객들이다. 과거 귀족 위주의 특정한 다수를 위한 공연이 200년 전 공연이었다면, 지금 모두를 위한 공연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문화 정책, 예술인 그리고 건축사들도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협업을 할 수 있고, 또한 새로운 형태의 공연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과거 음악 위주의 공연이 청각을 자극하였고, 미술 위

주의 공연이 시각을 자극하였다면, 이 둘을 담아낼 수 있는 공감각적인 공연 기획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건축 또한 그 경계가 다른 예술들과 어우러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충분히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데 있어 앞서 보았던 프로젝트와 같이 콘텐츠 개발을 위한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박희정 : 예술가에게 생계나 공연 수익과 같은 테마는 예술작업 자체를 방해하고 그 방향마저 바꿀 수 있지만 또한 작품활동과 삶의 영위를 위해 꼭 필요한 양날의 칼과도 같다. 한편 현재 우리는 분야를 막론하고 개인의 재능이나 직업의 전문성, 소명의식보다는 자기광고와 물질적 성공이 목적으로서 당연시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이 시점에서 음악가들이 지금까지 당연시 되어 왔던 경쟁구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메시지를 관객에게 던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예술의 가치와 예술가로서의 목소리를 천천히 잃어 갈 것이다.

예술의 경계가 경쟁만을 뒤흔는 현대사회에 부합하는 것으로 허물어진다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서 침과 위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분야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 자연을 닮은 사람은 자연답게 살아야 행복한 것처럼 예술인이 그리 남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좋은 내용으로 무대를 만들어내 사람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고 목소리를 키우고, 나아가 재정적인 지원까지 이끌어내려 수 있는 아름다운 영향력을 주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대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무대, 여러 장르와 소통하는 무대를 시도하여 관객과의 거리를 좁히고 음악 자체의 순수함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지치고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고 싶다.



블라이바흐 콘체르트하우스에서 진행된 연주회 풍경

콘텐츠 개발이라고 하면 정확한 프로그램이 정의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박희정 : 음악이라는 하나의 콘텐츠 안에 사실은 작곡가 개인의 인생

과 역사적 배경, 산업과 경제, 동시대 문학과 미술사조 언어 등 여러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고흐(Vincent van Gogh)의 정열적인 붓 터치와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음악의 극적 전개는 서로 상당히 닮아있음을 알 수 있다. 두 작가의 삶은 '실패'와 '불가능'이라는 동의어를 가진다. 이 단어들은 우리 인생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렇다면 우리와 그들의 닮은 점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다. 17세기의 바흐(Johann Sebastian Bach)와 20세기를 살았던 가우디(Antoni Gaudi)의 작품은 상당히 수학적이지만 동시에 예술적이며 종교적이다.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세계의 이미지가 사실은 작품 안에서 서로의 조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다양성을 쉽사리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는가?

이와 같이 많은 작품을 분석하고 조합하여, 장르와 시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테마로 오늘날의 관객과 소통을 시도하고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것이 바로 콘텐츠 개발의 시작점이 아닐까 싶다. 지금도 우리에게 크고 강렬하며 새롭고 자극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콘텐츠는 많이 있다. 그 중 우리 영혼에 건강하고 선한 것이 얼마나 있는가? 예술가로서 우리는 문화라는 옷을 입은 거대한 자본주의의 어두운 의식과 싸워야 한다. 모든 자본주의 논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술이라는 영역이 순수하게 남아있을 때 그 본분을 다할 수 있고, 시장경제 논리와 끝없는 균형 싸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질을 보다 높이고 후대에 물려줄 소중한 유산을 남기게 되지 않을까?

주현우 : 18~20세기의 음악으로 어떻게 21세기 청중의 흥미를 끌 것인지의 공연기획자들의 숙제다. 그 가능성이 무한하기 때문에 정확한 프로그램은 정의되기 쉽지 않다. 하지만, 기존의 음악을 반복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연주회 형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와의 결합을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예술인들은 단순한 기술과 반복된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기술자가 아니라 자기만의 이야기를 가질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인재가 되어야 한다. 이는 공연기획자를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가질 콘텐츠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2015년의 개인적인 소망은 무엇인가?

주현우 : 올해는 개인적으로 클래식 본 고장인 유럽에서 여러 가능성을 시도해 보았던 도전적인 한해였다. 내년에는 국제음악페스티벌과 여러 오케스트라와의 협력으로 많은 프로젝트가 예정되어 있는데, 결실을 잘 맺어 현재 종사하고 있는 분야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더 열거할 수 있는 기획자가 되기를 끊임없이 희망한다. 이런 기획자가 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과의 소통도 중요한 부분이다.

박희정 : 주위의 동료와 소통하고 나아가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무언가 다른 연주자가 되고 싶다. 우선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동네 음악인'으로 그 처음을 시작하고 싶다.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곡을 연주하는데 굳이 인터넷이나 음반이 아닌 연주회장에 와서 들어야 하는 이유가 '나'라는 사람 자체에서 얻을 수 있는 색다른 에너지기를 바란다.

건축도 그런 작품이 많아지길 기대해본다. 집값을 올려주는 유명한 외국 건축사의 부촌 빌라와 건물이 아닌, 한국의 자연과 역사, 우리의 의식주를 이해하는 건축물들이 많아지기를, 후대에 한 도시를 먹여 살리고도 남음이 있는, 그리고 시간예술을 하는 우리 내 연주자들이 만들 수 없는 공간을 연출해주는 훌륭한 건축사들과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활동해주시기를 바란다. **ㄷ**



김성한

2008년 중앙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한 후, 2013년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대학에서 건축 및 도시설계학부 석사과정을 마쳤다. 현재는 독일 Stefan Schmitz bda Architekten und Stadtplaner에서 근무하고 있다.



주현우

아트바움 대표로, 지난 10년간 세계 각지에서 공연 기획을 통해 여러 예술인들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경험을 한 뒤, 현재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기반으로 다양한 예술인들의 힘이 되어주고 있다.



박희정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 음악대학에서 최고 학위과정 졸업 후, 현재 유럽무대에서 폭 넓게 활동하고 있다. 항상 예술인으로서 대중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 스스로 질문하며 연주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